

칼럼

장기채 주필



가을은 창문을 열어야 보인다

가을은 창문을 열어야 보인다. 무작정 떠나야 만난다. 걸어가 는 것보다 마을버스를 타고 떠나 면서 가을의 숨소리를 들어야 느 낐다. 차창을 열고 들녘을 보라! 비록 내가 심어 놓은 추수할 곡식 은 아니더라도 황금알이 조랑조랑 달려있는 벼들이 눈부시다. 또 부 러질 듯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 는 과일을 바라보면 배가 부를 것 이다. 가을은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말을 해야 느낀다. 이글 은 가을을 예찬한 어머니의 사 진 중에서 따운 정여수 작가의 작품이다. 흔히 붉은 꽃과 다투고 여름은 태풍과 싸운다고 하지만, 가을은 다투지 않는다. 내려놓을 뿐 자기 비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다.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예찬한 것이 아닌가 싶다.

가을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별거숭이가 되어 겨울로 간다. 가 을은 시가 있는 계절, 가을에 숲을 거닐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. 로맹티시즘의 주인공이 된다.

조각달을 물고 기러기가 돌아가는 길, 그 가을 길에 노오란 은행잎이 가득하다. 가을은 바람의 수다가 있어서 좋다. 가을바람에 뒤척이 는 나뭇잎들 한 잎 한 잎 돌아눕 고 마음 흔들리는 가시에 외로움 의 등불을 걸고 혼자서 즐기다 취 해 볼도 좋을 것이다.

곰개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 답다. 아름다운 정취와 서정을 만 나 볼 수 있다.

그것은 오직 가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. 흔히 처서(處暑)를 두고 하는 말 중에 '땀에서는 귀 뚜라미' 등에 얽혀오고, 하늘에서 는 봉계구름 타고 온다고 했다.

그 처서가 벌써 지나갔다. 아무리 시는 일이 팽박하다 해도 높아진 하늘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알린 다.

폭염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렸어 도 자연의 섭리는 어느 덧 추석이 우리를 손짓한다.

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청량감 을 주는가 하면 하늘의 코발트색

이 나뭇잎 질어가고 있다. 분명 천 고마비(天高馬肥)의 가을이고 꽃 보다 아름답다는 단풍의 계절이 다.

우리 곁에는 백로도 찾아왔고 귀뚜라미의 합창도 시작했다. 곤 충 학자에 의하면 귀뚜라미의 울 음소리는 기온이 섭씨 24도 내지 26도 일 때 가장 높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한다. 태풍도 폭염 도 시간의 골레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.

민족의 대 명절 추석도 코 앞이 다. 들녘의 벼도 하루가 다르게 누 러진 빛깔을 띠고 있다. 이렇게 자연 은 호된 시련을 주기도 하고 또 반드시 인간에게 안식과 수확을 주기도 한다. 가을의 기는 이미 우 리의 옷소매에 스며들기 시작했 다.

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비전 이 보이지 않는다.

우리의 정치는 수렁에서 헤어나 지 못하고 있다. 국민에게 오늘의 확실함과 내일의 청사진을 알려줄

없이 그 자리에서 맴도는 꼴이다.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어떻게 지워야 할 것인가. 가을은 많은 것 을 생각하게 한다.

결실의 가을, 수확의 가을이라고 하지 않는가. 올 가을에는 흐트 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어봤으면 한다.

자연의 시련을 넘겼다는 안도보 다 새로운 용기와 의욕이 필요하다.

경제의 어려움은 장기화되고 많 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이 감소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.

이제 힘을 잃어버린 정치에 이 찬란한 가을과 함께 새로운 영감 과 힘과 용기를 불러 넣어야 한다. 올 추석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 운 명절이 될 것 같다.

그나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 지 못한 근로자가 한 사람도 없었 으면 좋겠다.

올 가을은 불우한 이웃을 살펴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보름 달 보며 즐기워하고 감사하는 주 석이 되었으면 한다.

자연의 시련은 계절과 함께 사 라질 수 있지만 인간이 저지른 재 앙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.

우리는 저 푸른 창공을 바라보 면서 이 가을을 멋있고 맛있게 설 계해야 한다. 그리고 가을의 은총 에 감사해야 한다.

社說

일자리사업 심사 신속해야

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사업 등 핵심 국정과 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해진다니 기대가 크다. 다소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투자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.

요즘처럼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일 때는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 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.

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 화하기로 했다.

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(광역 300억원·기초 200억원) 이상의 사업과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 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 을 편성하기 전 중앙정부가 심사 하는 제도다.

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 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기 전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.

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 일 자리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회 간접자본(SOC) 확충사업을 추진 할 경우 현재 3월과 6월, 10월 등 연간 3차례 하던 정기 투자심사 를 연중 상시로 하고 심사 기간 도 60여일 걸리던 것에서 30여일 로 단축할 계획이다.

고용위기지역 8곳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,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현재 8 개월이 걸리는 타당성 조사 기간 을 4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심사 기간도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.

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 안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 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

인터넷 호남신문 www.i-honam.com



독자투고

E-mail : ihonam@naver.com Fax : 062-222-5548

‘학교폭력’역지사지(易地思之)의 정신 절실

‘지나가는 낙엽만 떨어져도 웃 음이 나온다.’ 흔히 학창시절 꾸 밍없이 맑고 순수한 학생들을 포 현하는 말이다.

같은 교실에서 얼굴을 맞대며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던 시간은 평생 간직해야 할 소중한 추억인 것이다.

하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야 할 학창시절이 학교폭력으로 변질 되게 된다면,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악 몽과도 같을지 모른다.

‘학교폭력’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.

교육부가 주관한 2018년 1차 학

교폭력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,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 399만 명 중 1.3%인 약 5만여명이 학교폭력 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.

아울러,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은 언어폭력(34.7%), 집단 따돌림 (17.2%), 스토킹(11.8%) 등으로 확인되었다.

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 록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, 올해 9월 제천에서는 개학을 앞둔 여고생이 한 건물에서 투신 한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됐 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 였다.

이 여고생은 방학기간 중 친구 와 싸운 뒤 학교에 가기를 꺼려했

고, 한 동급생이 “개학하면 그만 히 두지 않겠다”며 위협적인 발 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.

또한, 작년 8월 전주에서는 여 중생이 자신이 살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는데, 이 여중생 은 SNS등을 통해 집단따돌림을 당했고 동급생 6~7명에게 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.

이토록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 기 위해,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 찰관(SPO)을 양성하여 신체적 학 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 선도·보호에 앞장서고 있 다.

또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

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피 해 예방과 신고, 상담, 수사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, 9.3~10.31일까지 학기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여 학교폭 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예방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.

학교폭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.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가 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행동 교 정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 다.

하지만 ‘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.’는 옛 속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 한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근 본적 원인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을 통해 실질적인 근절방안을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.

양현우 /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 순경

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

昆 池 礪 石

昆 池 礪 石

뜻: 곤지(昆池)는 운남 곤명현(昆明縣)에 있고, 갈석(礪石)은 부평현(富平縣)에 있음.

본 사 :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(광주시 동구 학동 633-3번지 정도프라자 5층) 서울취재본부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-16 Tel (02) 2238-0003

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·편집인 김 부 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

1946년 3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쇄 (주)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.

“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” E-mail : ihonam@naver.com

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

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

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?

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?

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.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.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
한국언론진흥재단